

「산업환경신문」 창간

산업사회의 본격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급조된 환경오염 문제를 분석적이고도,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환경전문지 「산업환경신문(발행인, 전인권)」이 금년 1월 1일을 기해 창간되었다.

특히, 산업환경을 중점적으로 다루게될 이 신문은 인류의 생존권과 국민건강생활 추구에 대한 사명감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정론을 펼 것이다. 반면 산업현장근로자의 작업안전과 보건 측면에서 산업인의 재해예방과 유해위험 예방 조치에 주력함은 물론, 환경전반에 관한 정보와 기술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신문은 쾌적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7大사업(환경 “아이디어”대상, 국제환경 심포지움, 국민환경 의식조사, 쾌적환경 의식고취 웅별대회, 해외 우수 환경업체 견학단 파견, 환경오염 사진전, 환경법전 발행)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 자원재생공사〉

하이덴 폐수지 재생처리공장 기공식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이충식)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에 설치하는 하이덴 폐수지 재생처리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은 박판제 환경청장, 노건일 충북도지사, 국회의원 정종택, 김현수 의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동 공장은 농경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하이덴 폐수지(HIGH DENSity polyethylene)를 재생처리하여 생산능력 연간 2000톤으로써 중간원료, Pellet을 생산하게 된다. 이로써 연간 6억원의 자원증대 효과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88년 1.월 준공예정인 동 공장은 국내의 최초 시설로서 기술개발, 경제성, 자금능력 등의 문제로 민간인이 전혀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전액 국고(약24억원)를 투입하여 시설하는 것이며, 완전 자동차, 무공해의 대단위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앞으로도 지역별로 확대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안정화처리 및 자원증대 측면에 획기적인 기여시설로 폐자원의 재생처리사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방지시설업 등록

●주식회사 새한엔지니어링(대표·김환철)에서는 1987년 12월 2일 부로 수질오염방지시설업(서울환경지청 제16호) 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시작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

●청우환경개발주식회사(대표·문정원)에서는 1987년 12월 15일 부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업(서울환경지청 제55호) 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678-4